

KCC, 대죽 석고보드 공장 가동

2004년 100만평 생산목표 ... 리모델링으로 안정적 시장성장 기대

금강고려화학(KCC)이 2월2일 충남 서산 대죽공단 내에 대지 10만평, 건평 2만5000여평 규모의 석고보드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KCC(대표 고주석)는 현재 전남 여천공단 소재 석고보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석고보드 공급부족 사태를 해소하고 수요처에 대해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공장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장건설에는 2년 동안 총 1300억원 가량이 투입됐으며, 2004년 100만평의 석고보드를 공급하고 2005년에는 2000만평, 2007년까지 3000만평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대죽 석고보드 공장라인에는 첨단 밀도조절 설비 등 그 안 축적돼 온 생산기술력을 적용했으며, 세계적인 생산성을 갖춘 공장에서 더욱 가볍고 강도가 뛰어난 석고보드 제품을 공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CC의 대죽공장 전경



또 단순한 수요증가 뿐만 아니라 내화, 차음 구조체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시장 추세에 발맞추어 석고보드 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건강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공기 중의 유해성분을 흡착하는 등 친환경 기능을 높인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 석고보드 시장규모는 현재 3500억원으로 추산되며, KCC가 2003년 말 기준 55%의 점유율로 시

장을 주도하고 있고 프랑스계 라파즈와 벽산이 뒤따르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건설공법의 건식화와 리모델링 활성화 추세에 따라 석고보드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03>